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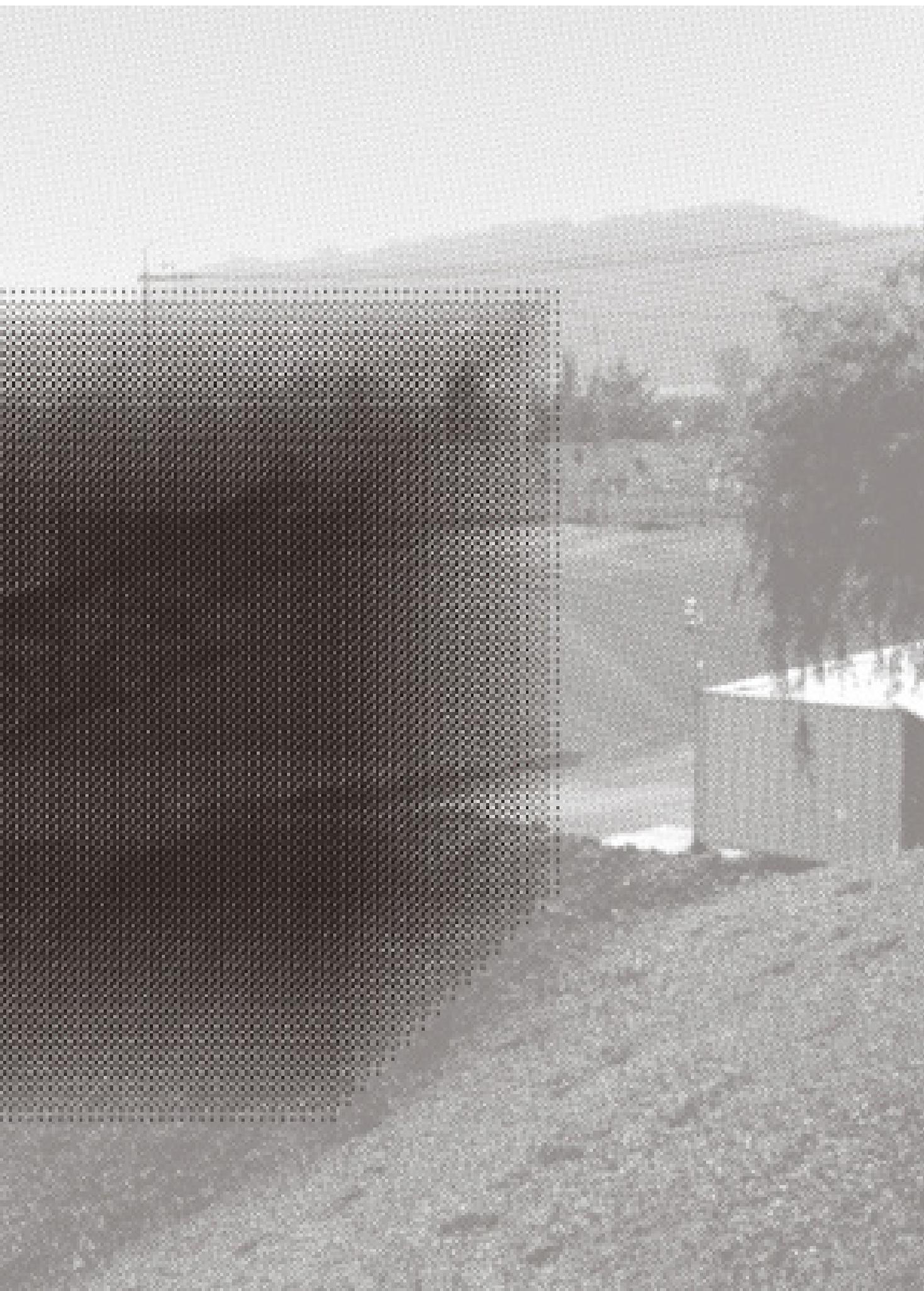
Exodus
Mud Poem

exodus (많은 수명의 죽음처럼 많은 죽음, 이란)

Published by Danji Cho

The 7th Gwangju Biennale 2008.9.8-11.9





엑소더스

진흙시

드문지

흙과 나는 모퉁이 모퉁이 하였다.
같이 함께 할줄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모퉁이 하는 길 알고 있었다.
난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은 흙을 곁에
특별제를 만들어 모퉁이 떠리고 나뉘고
같은소 사람들은
특별에서 흙을 달았으므로
흙과 함께하는 나를 계속적인 정문에서
흔들어서 주었다.

우리는 서로 모퉁이한
서로의 잘 못을 알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해서가 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서가 잘 살긴
난 흙과 같이 우에도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프리카 기쁘게
특별제 흙을 같이
같이
달렸다.
나는 흙을 곁에서 달리고
흙은
백
하고 시작였다.

우다어겐
한말 보지않
같이다.

난 그리고서 이렇게 모퉁이한 흔에서 말을 내 달렸다.

흙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인가
같이 있어는
드문지
있다.

아무도 흙이
다른 곳에서 온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모양이다.

흙은 다시는
특별제가 서게 없을 것을
알리하게 잘 갔지만.

Exodus

Mud Poem

Eunji Cho

Mud and me hatched the plan
The plan was to escape together during the night
We knew we should help each other
I made a cube with as yet unshaped mud
Then I carried a mud cube with me discreetly
Security people trusted the shape of a mud cube
So they let me pass every border controls

Although we helped each other
We knew we were going to be apart
As we have separate paths for our lives

When it was the moment to be separated
To wish each other better lives after we are apart
Rather joyfully
I took apart the mud cube
And threw it
Far away

I threw it without mercy
Mud disappeared
With a sound like
'Pack'

For us,
It's life
Not tears

I step, solitarily, into somewhere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the mud went to
I heard she is well
Somewhere out there

It seems that nobody talks about where the mud escaped from

Mud will live miserably enough
not to become a 'cube' again

